

중국 '짜퉁' 상품, 가짜가 되레 특허 신청

모조품의 천국 중국에서 '짜퉁' 상품이 진짜 상품 대신 특허를 신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지난 11월 15일 중국의 모조품 제조업체들이 유명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모조하거나 약간만 바꾼 상품에 대한 중국 내 특허권을 따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허 중국의 짜퉁업체들이 이를 이용, 유명 브랜드를 생산하는 외국업체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특허권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모조업체들은 특허 및 상표권과 관련해 먼저 개발하거나 이용한 업체보다는 특허 및 상표권 등록을 먼저 신청한 업체를 우선 인정한다는 중국 당국의 방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유명 브랜드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중국 진출이 좌절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차례의 항소 과정을 포함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개 수년이 걸리고 있다. 이때문에 컴퓨터 칩이나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신제품 개발 주기가 짧은 상품의 경우 '만만다' 소송을 거쳐 특허권 분쟁이 해결되고 나면 이미 그 제품이 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조상품 제조사들에 대한 제재도 최대 50만위안(원) (한화 7천5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남발할 요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국가 도메인, 외국업체 등록 허용

내년부터 인도 국가 도메인 닷아이엔(.in)에 대한 외국업체의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닷아이엔 도메인 등록을 통해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서 자사의 상표권 보호는 물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도의 인터넷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10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인증 도메인 등록기관 알지네임스(대표 이삼석/http://www.r.co.kr)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ICANN의 새 도메인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인도 국가 도메인인 닷아이엔에 대한 등록이 쉬워지고 외국업체의 등록도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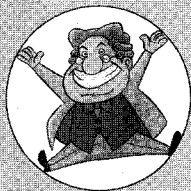
기존에는 인도 내에서 인정되는 상표권과 신청된 도메인 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등록이 가능했으며 또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등록비용결제의 어려움과 인도 국가 도메인을 관리하는 NCST(National Centre for Software Technology)의 등록 서비스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등록을 원하는 기업이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인터넷망 공급업자(ISP)들이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해외기업들도 닷아이엔 도메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알지네임즈측은 설명했다.

현재 인도 국가 도메인은 3단계인 닷씨오닷아이엔(.co.in), 닷넷닷아이엔(.net.in), 닷오알지닷아이엔(.org.in) 등이 있으며, 국가 도메인이지만 세계적으로 도메인 자체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2단계 닷아이엔의 경우 3단계 인도 도메인 등록 개방 이후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일본 도시바 하이닉스 상대 '특허 침해' 소송

하이닉스가 지난 11월 9일 거래소시장에서 일본 반도체업체인 도시바로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도시바는 하이닉스가 플래시 메모리와 관련한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 지방법원에 제소했고 조만간 미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하이닉스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하이닉스 매출에서 플래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이며 내년에는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하이닉스가 플래시 메모리 생산에 적극 나서자 세계 2위의 플래시 메모리업체인 도시바가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닉스도 나름대로 대응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장 특별한 영향을 미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바가 시장 규모가 더 큰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볼 때 하이닉스가 로열티 지급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면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출원·특허등록 하는 방법 ① 특허(등록)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